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보경 칼럼

위치정보 수집,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최근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실은 몇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 의해 발견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알래스타어 앨런과 피트 워튼이 consolidated.db 라는 이름의 파일에 사용자 위치정보가 담긴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PC에 설치된 아이폰즈에 동기화 될 때마다 백업 파일 형태로 업데이트 된다. 이들은 사용자 위치정보가 애플에 전송된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이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애플이 방화한 까닭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수집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 했는지 애플은 답이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위치정보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엔지니어들은 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 파일에 축적된 위치정보를 지도에까지 표시해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은 그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결합되면 엄청난 정보가 된다. 이 네트워크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토대로 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는 그 결과는 끔찍하다. 한 개인의 행적을 추적해 범죄의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당연하다. 휴대폰은 단말기가 접속된 와이파이나 3G 네트워크를 통해 상당히 정확한 위치 정보를 찾아낸다. 개인 정보 유출 이후 보이스피싱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더욱 경악했다.

소식을 접한 사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주 제기된 애플의 운영체제(OS인 iOS4가 매시간 방문위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더욱이 이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고객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까지 모색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도 아니다. 사용자들에게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사실 여부를 떠

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충분히 소름이 끼친다.

아이폰으로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미국 수사당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를 알고 수사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된다. 암호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도 쉽게 해킹될 수 있다. 애플이 고의로 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애플은 최소한 위험성을 고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각국 정부들은 조사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형태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지난 21일 애플 코리아에 실무진 차원의 문의 절차를 가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25일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치정보 관련법 위반 여부와 이용자 보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내용은 △위치정보 저장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 삭제 가능 여부 △이용자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 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독일·이탈리아,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추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미 하원 에너지환경위원회의 에드 마키(민주당·매사추세츠) 의원은 이날 잡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치추적 정보의 수집과 저장, 공개 등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구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 위치 등 정보를 수초마다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시간당 몇 차례씩 구글에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위치정보 문제가 확산되자 구글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위치정보 수집은 사실이지만 애플과 달리 사용자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도 익명 처리돼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정보사업자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그 위험성도 충분히 알아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 있다. 또, 만약 사업자가 이를 활용해 수익을 냈다면 마땅히 사용자에게 혜택도 주어야 한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막을 여지는 생겼다는 점이다. 위치 정보 문제는 다시한번 사회적 이슈가 됐고, 첨단 기기를 활용한 위치정보 수집의 위험성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정부도 이번 사건과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이 발전할 수록 이같은 사건과 논란은 더욱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다소 더디 발전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소중함은 반드시 되짚어 가야 할 것이다.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김재철, ‘김미화’ 라는 경쟁력을 버린다



김용민 시사평론가

어느 방송이든 MC 진퇴는 사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러나 사장 결정만으로도 그것이 결정될 때에는 뒤따라 생기기 쉽다.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사퇴했다.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에서 말이다. 자진(自進)의 형식이다. MBC 측은 “김미화 씨가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온 데 대해 감사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태의 전말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무난한 교체로 여기지 않는다. ‘전과’가 있었다. 드라마 ‘폭풍의 연인’을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시켰다.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는 직접 나서 PD를 교체해 버렸다. ‘PD수첩’은 핵심PD들을 빼버리더니 아이টে일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누가? 김재철 사장을 필두로 한 경영진이 말이다. 이쯤 되면 일선 PD를 믿을 수 없다는 회사 수뇌부의 결연한 문제의식이 확인된다.

문자 쓸 일이 거의 없는 단순 노무현장에서도 통상 사람을 내쫓을 때에는 ‘흠집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MBC가 김미화 씨를 꼭 퇴출하려 했다면, KBS처럼 ‘발음과 호흡이 부적절했다’는 구실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김미화 씨와 만났다는 라디오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은 안 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을 뿐이라고 한다. 사실 김미화 씨의 판단은 어렵다. 탄압받더라도 불의에 맞서 결연히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면 했다. 그러나 김미화 씨의 깊은 사려도 헤아리게 된다. 터무니없는 ‘친노’, ‘선동꾼’으로 매도한 이들에게 “나는 남과 싸울 일 없는 코미디언일 뿐”이라는 아주 명징한 일침을 가했기에 말이다. 김미화 씨를 ‘마녀사냥’한 주인공들, 역사로부터 ‘코미디언을 두려워하며 내쫓은 이들’로 규정될 것이다.

그러나 MBC라디오가 격정이다. 광고수입, 꾸준한 2000억대. 청취율, 줄곧 1위. 이런 거의 전설이기에 그렇다. 추격하는 경쟁사, 1990년대 MBC라디오처럼 표준FM 서비스를 개시했다. MBC에서 하차한 MC를 그대로 모셔와 동시간대에 편성하기도 했다. 때론 차별화가 길어졌더니 해서 색다른 포맷을 시도하고, 새로운 소구층을 겨냥했다. 그러나 지표는 미동도 없었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한 유명 트로트 가수는 당시 10%대의 청취율을 보이던 MBC라디오를 지목하며 “MBC에 나가는 것은 1%대의 A방송 10번 출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지금 3사 중 MBC만이 ‘라디오본부’가 존속하고 있는 것도 이런 때때 파워의 덕이다.

라디오PD 출신에, 언론학 전공자인 나로서도 MBC라디오의 부동의 ‘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년간 살핀 끝에 내린 결론은 ‘탈피’이었다. 포맷 다변화, 새 인물 집착, 고담준론(高談峻論)식 저널리즘을 거역했다는 것이다.

우선 첫째 ‘포맷 다변화 탈피’. MBC라디오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램은 ‘편지쇼’ 형식이다. ‘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 ‘강석 김혜영의 싱글빙글쇼’,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가 그렇다. 인격수양이 안 된 몇몇 아이들의 신변잡기 대신 평범한 이웃의 삶을 채운다. 이 리얼리티는 감동 또 웃음이라는 공감을 수반한다.

둘째, ‘새 인물 집착 탈피’. 묵하면 묵힐수록 배가되는 게 장맛이듯, 안착한 MC를 본인이 사의를 표하기 전까지 통런케 했다. 적어도 김재철 사장 직전까지는. 손석희, 양희은, 강석우, 강석, 김혜영, 김홍국, 조영남, 최유라, 김미화, 최양락, 박경림 등은 MBC라디오가 MC를 소모품 정도로 여겼다면 보유하기 힘들 강령한 맨 파워이다. 실은 이런 노하우를 정상급 음악FM SBS 파워FM도 원용한 듯하다. 이숙영, 김창완, 최화정, 김창렬, 박소현의 멋진 지구전과 높은 청취율이 근거다.

셋째, ‘고담준론식 저널리즘 탈피’. MBC라디오의 양대 시사 프로그램은 2000년 ‘손석희의 시선집중’, 2002년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다. ‘시선집중’은 뉴스메이커로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거대담론의 연성적 접근자로서 채널 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존재가치를 뿌리내렸다. 과거 특권층이 주물렀던 시대적 논제를 서민의 슬상에 올린 지대한 공로가 이 두 프로그램에게 있다. 구체적 비결은? 쉽다. 재미있다. 때론 분노를 발산케 한다. 드라마 못지않은 흥미를 자아낸다.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 한때 표방했던 캐치프레이즈 ‘153cm 아줌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 그 진정성이 있다.

2002년에 방송을 시작했으니 1년만 더 하면 방송 출범 10년이 되는 관록의 MC를 뚜렷한 하자 없이 사실상 교체했다. ‘김미화 퇴출’은 따라서 MBC라디오 스스로의 경쟁력을 실추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김미화 씨의 후임을 두고도 ‘김재철 사장의 신임’이 변수가 되는 형편이다. 전직이나온서 출신의 B 모 씨가 운위됐던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나 노조는 그 MC석을 ‘소박하고 수수한 이미지의 진행자’의 자리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양식 있는 방송사 CEO라면 제작 실무진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흥과 혼이 샘솟도록 뒷받침해야 마땅하다. 멋대로 자르고, 지르는 김재철 사장의 행태, 본인이 이끄는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자해보위에 볼 수 없다. 코미디언은 비극의 주인공이, 방송사 사장은 희극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이따한 MBC라디오의 궤도 복귀, 언제쯤 가능할까.

HD 콘텐츠 제작 - 방송음향 ProTools 과정 교육안내서

목 적

- Pro-Tools를 활용한 고품질 프로그램 음향제작 역량 강화
- 음향 편집 교육을 통한 포스트 프로덕션, 마스터링 등 음향분야 직무 능력 향상

개 요

- 교육일정 : 2박 3일 과정, 2회 시행
- 1차 : 04. 27(수) ~ 04. 29(금) - 2차 : 05. 11(수) ~ 05. 13(금)
- 장 소 : 디지털 방송기술 교육센터 (KBS 인재개발교육원 내·수원소재)
- 수강생 구성 : KBS, MBC, SBS, EBS, 지역민방 등 음향관련 분야 직원 총 20명

교육 커리큘럼

일차	시간	과목명	강사
1일차	09:30 - 10:00	교육안내	진행자
	10:00 - 12:00	■ General ProTools System (Hardware Setup Basic, I/O setup, Engine Options..)	ProTools 공인강사(KBS김대양)
	12:00 - 13:00	중식	
2일차	13:00 - 18:00	■ Basic Navigation & Operation, Output (Browsers, Track, Rulers, Record mode, Editing..)	ProTools 공인강사(KBS김대양)
	09:30 - 12:00	■ Track Import & Multi Track Recording (Setting up Mix Window, Setup Recording..)	ProTools 공인강사(KBS김대양)
	12:00 - 13:00	중식	
3일차	13:00 - 18:00	■ Plug-ins & Mixdown, Mastering (Setting up Plug-ins, Mix Group, Mixing Signal Flow..)	ProTools 공인강사
	09:30 - 12:00	■ Course Summary 및 개인 그룹별 음향 제작 시연	ProTools 공인강사
	12:00 - 13:00	중식	
	13:30 - 16:00	■ ProTools를 이용한 개인 그룹별 음향 제작 시연	(KBS김대양)
	16:00 -	교육실문조사	진행자

*상기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방송사별 배정인원

방송사	배정인원	비고
KBS	5	
MBC	3	전체인원 : 20명
SBS	2	회차당 : 10명
EBS	2	
기타 민방	8	

접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digitalpro.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및 수강신청현황은 http://www.digitalpro.or.kr (ID:이름 PW:소속사) 로그인 후 확인
- 기타 자세한 접수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기 타

- 교육비 : 무료
- 교육생 출장비는 각자 자체부담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방송협회 경영지원팀 왕중남 (02-3219-5569)으로 문의 바랍니다